

# “길르앗 사람 입다”

## ❖ 사사기 10:17-11:11

17 그 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18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라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1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2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3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돌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4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5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돌 땅에 가서

6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7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8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9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10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11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 입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암몬과 맞서기 위해 미스바에 진을 칩니다. 이 미스바는 성경에 나오는 다섯 곳의 미스바 가운데 한 곳입니다. 순서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대적과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하는 차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에는 앞장 서서 싸울 용사도 없었습니다. 길르앗 주민들은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는가?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머리”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서 사람이 없었고 결국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옵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이었습니다. 입다의 아버지는 시흥시에 사는 “김시흥”씨처럼 길르앗에 사는 길르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 즉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입다의 형제들은 장성한 후에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할 것”이라면서 입다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사극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서자의 설움이지요. 그냥 집에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가문에서 이름을 지워버렸다는 것이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써의 신

분까지 박탈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일부다처의 신분제 사회에서 이런 일이 만연했습니다.

입다는 집에서 나와, 길르앗 북동쪽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뚝”이라는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입다에게는 잡류가 모여 들었습니다. “잡류”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는 “비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류”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번역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오직 여호와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입다를 따르게 되었다고 이 구절을 좋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잡류”라는 단어는 사사기 9장에서 “경박한 무리들”로 번역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살해할 때에 고용했던 살인청부업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잡류들이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는 구절을 많은 번역본에서 “그를 따라 약탈하러 다녔다”고 번역합니다. 입다는 조직 폭력배, 또는 무장 강도단의 두목이 된 것입니다.

###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

그런 입다에게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하니,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정황상, 입다가 약탈한 대상들은 길르앗 주민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가 집에서 쫓겨날 때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은 길르앗 주민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겠지요. 길르앗 장로들은 자신들에게 강도질을 하던 길르앗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니다.

그런데 길르앗 주민들은 앞장 서서 싸울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머리”가 아닌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장관”은 군대지휘관을 의미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조폭 두목을 통치자로 모실 의향이 없었습니다. 입다를 전쟁 때만 이용하고는 버릴 속셈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장로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더니, 이제와서 곤란하게 되었다고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장로들은 입다에게 지휘관이 아닌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입다는 “만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과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고 약속을 확인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입다는 길르앗의 지휘관과 통치자가 되어 장로들과 함께 미스바로 향합니다. 11절,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는 구절은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길르앗 장로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맹세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 불안의 징조

이렇게해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발견됩니다. 먼저 입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관계 없이 길르앗 장로들이 선택한 사사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가 통치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마지 못해 지휘관과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첩의 자식이라는 비천한 신분과 조폭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들의 지극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필요가 맞아 떨어진 결과 입다가 사사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또 다른 근거는 기르앗 장로들과 입다가 나눈 대화의 구조입니다. 장로들은 입다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입다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입다에게 지휘관이 아니라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또 다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화는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나눈 대화와 유사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면서 우상을 제거함으로 또 다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이용당하기를 거절하셨지만 입다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너희가 택한 신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구원자로 입다를 선택했습니다. 입다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선택한 우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처음에 장로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섭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에 맞서 앞장서서 싸우려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통치자가 되고 싶어서 장로들의 처음 제안을 거절한 것이고,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암몬 족속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우상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 요청을 거절하셨고 사사를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전한 성품이나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입다를 통치자로 선택합니다. 입다는 애국심이나 신앙심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오직 출세를 위해 암몬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는 척했지만, 입다라는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 없이 세워진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면서 회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 이후에 또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만한 역량있는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제 드러나겠지만 입다는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부정적인 면을 골고루 섞은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세워진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난 주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 ❖ 사사기 10:16(하)

16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근심하시니라”를 새번역에서는 “보고 계실 수만은 없으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비록 자기 죄로 인해 심판 받는 것이지만, 택하신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고통 당하는 현실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만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심판을 받음에도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고, 능력있는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택

하신 백성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사사시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35-43을 읽겠습니다.

#### ❖ 마가복음 5:35-43

- 35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 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 37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 38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 39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 40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 41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딸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 42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 43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와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마도 야이로는 딸이 병에 걸린 순간부터 온갖 방법은 다 동원해서 치료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도 없었고 딸은 나날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야 말로 피가 말랐겠지요.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도착해야 딸이 살아날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사람들이 협조를 안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서 예수님을 에워싸, 한 발을 내딛기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 협조를 안하십니다. 예수님을 밀치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도 발걸음을 멈추시고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별로 급해보이지 않는 한 여인의 혈루병을 고쳐주시고 그 믿음까지 칭찬하시느라 시간을 허비하십니다. 나는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은 너무 느긋하십니다.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당신 딸이 이미 죽었으니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예수님이 오셔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야이로의 모든 소망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이미 조문객들이 집에 들어 와서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아이의 방에 들어갔더니 집에서 나갈 때만해도 살아 있던 딸이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누워 있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최악의 결과가 현실이 되었을 때, 남은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순간 최악의 현실은 그저 잠깐 꾸었다 깬 악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방을 걸어다닙니다. 이 직전까지 아이로써 사로잡았던 죽음의 절망과 예수님에 대한 원망은 사라지고 죽은 딸이 살아났다는 기쁨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로의 유일한 소망은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간 자기의 정성이나 죽어가는 딸 아이를 살리기 위한 사람들의 협조가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인생을 붙잡고 여기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증거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길르앗 장로들과 같은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지만 웬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냉정하게 거절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지만, 내가 맞는 선택을 한 것인지 스스로 의심스럽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로와 같기도 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피가 마를 지경인데 가까운 사람들조차 내 마음을 몰라주고 협조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려하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습니다. 나는 급한데 예수님은 너무 느긋하십니다.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세세하게 살피시면서도 나한테는 유독 무심하십니다. 그러다 결국 모든 기대가 무너졌는데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말씀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거두시고, 내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근심하십니다. 우리의 곤고함을 보고 계실 수만은 없어서 열심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여겨지는 극단적인 절망을 통해서도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합니다.

### 출지도 주무시지도

시편 121편을 읽겠습니다.

#### ❖ 시편 121편

-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 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 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 5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 6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 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 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해 가면서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자신들의 곁을 그림자처럼 머무시며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좋은 신자라면 깨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자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나 역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림자의 존재를 느끼지 못해도 그림자는 늘 우리 옆에 머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감각기관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을 지나치게 의지합니다. 간혹 예배나 기도 중에, 또는 삶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강력하게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기적이나 감동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추진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 되고 주변을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다 내 통제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시시하게 여겼던 예배에도 하나님은 늘 임재하셨습니다. 야이로와 같이 상황이 협조하지 않고, 나는 급한데 예수님은 너무 느긋하시고, 하나님은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의 형편만 돌아보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시면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만, 내가 처한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었어도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 죽음은 잠으로 변합니다. 도무지 소생의 기미가 안 보여도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죽은 영혼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은 이미 죽은 것과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져서 어떤 소망을 품는다는 것조차 비웃음거리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실망과 허탈함을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생각해볼 질문들**

1. 길르앗의 장로들이나 야이로와 같은 심정이 된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거절 당한 것 같거나 유독 나에게만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2.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나의 느낌이 착각 또는 오해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경험이 있나요?
3. 나의 판단이나 내 눈 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